

1956년: 전설의 시작 1956: The Birth of a Legend

아방가르드하면서도 과감한 매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블랑팡의 레이디버드(Ladybird) 타임피스는 60년전에 탄생하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 시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수십 년 동안 우아하고 모던한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여성용 타임피스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으로 기록된다.

과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닌 레이디버드의 탄생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운드 워치를 당신의 마켓에 처음으로 소개하세요.” 이것이 그 당시 레이디버드의 광고 문구였다. 레이디버드가 태어난 1956년에는 다이얼보다 다이얼의 장식이 더 눈에 띄는 주얼리 워치가 각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때마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의 무브먼트인 칼리버 R550을 공개한 것은 블랑팡에 있어 매우 스마트한 선택이었다. 지름의 사이즈는 11.85mm에 불과하지만 40시간에 이르는 파워리저브를 자랑했으며, 이는 그 당시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미적인 이유 때문에 옹두의 위치는 시계의 뒷면으로 옮겨졌다. 이스케이프 휠 위쪽에 있는 피벗(pivot)의 지름은 0.07mm로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보다도 얇았다.

레이디버드는 즉각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우아한 손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 전체에 보석이 세팅된 모델에서부터 브레이슬릿을 교체할 수 있는 좀더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모델에 이르기까지, 레이디버드의 디자인은 진화를 거듭하며 가장 까다로운 여성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게 되었다. 레이디버드는 해가 갈수록 거듭된 성공 거두며 컬렉션을 확장해나갔다.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행에 뒤쳐지지 않는 레이디버드 컬렉션을 위하여 블랑팡은 여성용 타임피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레이디버드 컬렉션에 오마주를 표하고자 한다. 새로운 오토매틱 무브먼트 6150은 15.7mm의 초소형 지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무브먼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 중 하나이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성들에게 바치는 모델을 론칭하는 것만큼 시기 적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99피스만 한정적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을 위하여 화살이 관통하는 하트 모양의 루비 소재 참(charm) 장식을 고안해냈다. 2016년 바젤월드에서는 레이디버드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개 소재 다이얼을 반짝이는 소재들의 명암 대비와 정교한 나뭇잎 모티브로 장식한 두 번째 리미티드 에디션이 소개될 것이며, 이 모델은 60피스만 선보일 예정이다.

이 한정판 레이디버드(Ladybird)의 스트랩은 루이지애나 악어 가죽 중에서도 비늘의 무늬가 잔잔한 것들만을 골라 수작업으로 완성하여 세련된 미적 매력이 돋보인다. 베젤에는 32개의 다이아몬드, 다이얼 표면에는 8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핸즈는 물방울의 형태를 연상시키며, 케이스는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졌다. 투명한 케이스백은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장식된 로터가 돌아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한정판 타임피스들과 더불어, 이번 바젤월드를 통해 두 가지 새로운 레이디버드 모델들도 추가로 공개된다. 첫 번째 모델은 자개 다이얼을 4개의 하트 모양의 루비로 장식했다. 탈착 가능한 하트모양 참 장식을 추가하여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시계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모델은 레드 골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오팔린 다이얼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에 둘러싸여 반짝인다. 이 모델에 부착된 참 장식은 무당벌레로, 7개의 루비와 11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용 시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 선구자적 여성 리더

프레데릭-에밀(Frédéric-Emile Blancpain) 블랑팡은 줄-에밀(Jules-Emile)의 후손으로, 1889년부터 1932년까지 가족 사업으로 운영하던 블랑팡 시계 공방을 이끌었다. 그가 블랑팡을 이끄는 동안 그는 젊고 유능한 여성, 베티 피슈테르(Betty Fiechter)와 함께 일했으며 그녀는 16살의 나이에 블랑팡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 프레데릭-에밀과 함께 트레이닝을 마쳤다. 그녀의 타고난 대범함과 일에 대한 헌신, 그리고 지성은 곧 사업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프레데릭-에밀은 생산과 세일즈 업무를 관리하는 자리에 그녀를 앉혔다. 그녀는 블랑팡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모던하고 감각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곧 블랑팡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프레데릭-에밀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베티 피슈테르는 블랑팡을 이어받기 위해 그녀의 동료 앙드레 릴(André Leal)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 사업체를 인수하고 그 이름을 “블랑팡의 후계자, 레이빌(Rayville)”이라고 지었다. 그 때가 1933년 7월 7일이었고, 그녀는 프레스티지 워치 하우스 최초의 공동 여성 오너가 되었다. 앙드레 릴이 1939년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 사업체를 떠맡았고, 사업체를 키우는 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녀의 조카를 사업체 운영에 참여시키게 되었고,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는 합류와 동시에 사업체의 현대화라는 임무에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한다. 1952년을 시작으로 베티와 장-자크 피슈테르는 다양한 칼리버를 개발하였고, 이는 주얼을 사용한 시계들에서 새로운 수익과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입지를 다지는 발판이 되었다. 여성 리더, 베티 피슈테르는 블랑팡 하우스의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낸 인물이다.